

미래 에너지의 모든 것 한자리서 본다

신재생에너지 전시 'SWEET 2013' 개막

12개국 175개사 참여 15일까지 DJ센터 프록LED 등 광주업체 21개사 참여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차세대에너지로 활용될 신기술 및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13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3'이 개막한 가운데 ㈜프로맥LED 등 광주지역 업체 21개사는 LED를 이용한 투광기와 풍력발전시스템, 리튬배터리팩 등 최신 기술력으로 관객과 바이어를 사로잡았다.

KOTRA와 한국풍력산업협회,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본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동 주관, 올해 8회째인 'SWEET 2013'은 15일까지 개최되며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최신 정보와 함께 국내업체의 국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행사다. 전

사회에는 광주 및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 미국, 일본 등 국내·외 12개국 175개사가 참여해 500부스를 설치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로등과 실내조명 분야에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프로맥LED와 ㈜에너지와공조 등 광산업 업체, ㈜피파이 등 광통신 분야 지역 업체들이 눈에 띄었다.

초고휘도 LED 패키지 개발 및 자연대류방식 방열효과를 이용한 가로등 개발의 선두주자인 프로맥LED는 고효율에너지저장장치 인종과 디자인 등록 및 실용신안을 취득하고, 미국 등에 수출한 가로등·투광등 등을 전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한 에너지와공조는 자체 개발한 LED램프를 선보였으며 광전송용 소자 전문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SWEET 2013'이 1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수소연료전지차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업체인 피파이는 광파워 분배기와 광과장 분배기를 비롯해 세계 최초로 광과장 파워를 PLC(광판 광회로 기술)칩을 사용해 자동으로 측정하는 계측기 등을 내놓았다.

지역 업체 외에도 현대자동차와 캐이디파워,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관련 기관도 총출동해 다양한 미래에너지의 현재를 관객에게 알렸다.

관객을 위해 풍력발전기·태양광자동차 만들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전시, 지열 시스템 전시 및 시연 등 신재생에너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놀거리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초로 전시장 내부 백열전등을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해, 빛고를 친환경 도시 이미지와 함께 에너지 절감 전시의 성격을 잘 보여줬다는 평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최대 흑자

작년 당기순익 155억원

전남도가 출자한 공기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지난해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래 최대의 흑자를 달성했다.

1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2012년 회계결산 결과 토지 판매 등의 실적 호조로 매출 2129억원, 영업이익 292억원, 당기순익이 155억원 등 지난해 2004년 창립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익의 155억원은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매출은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와 남악신도시 토지 분양 등 용지 매출이 2003억원, 관광상품 및 운영매출 70억원, 대행사업 등 기타 56억원으로 매출액 2100억원을 넘겼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011년 대비 1144% 늘었다.

총자산 규모는 1조1605억원으로

전년보다 775억원 증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012년 회계연도 결산을 오는 15일 정기 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2010년(-43억원)과 2011년(-95억원) 2년 연속 당기순익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번 흑자 전환으로 흑자경영의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

지역 고용시장 갈수록 악화

2월 실업률 광주 3.8%·전남 3.2%

2월 광주·전남의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3년 2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2월 취업자는 68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2%(1만2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55.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2월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0%(5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8%를 기록해 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 실업률은 남자가 4.7%로 1.5%포인트 상승했고 여자가 2.6%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지역의 2월 취업자는 88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1.5%(1만3000명) 증가, 고용률이 0.8%포인트 하락한 59.6%를 기록했다.

전남의 2월 실업자는 2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28.2%(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2%로 전년 같은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6%로 전년 같은달과 비교해 1.0%포인트, 여자는 4.0%로 0.2%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달과 비교한 경제활동인구는 광주에서 71만3000명으로 2.9%(2만명), 전남에서 91만명으로 2.2%(1만9000명) 각각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스턴트 커피 '블랙의 힘'

매출 8년만에 증가

원두 커피믹스 시장이 성장하며 인스턴트 커피 매출이 8년만에 상승했다. 전통 커피믹스 증가세는 주춤했다.

13일 AC닐슨의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스턴트 커피 매출이 2010년 1486억원, 2011년 1448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1616억원으로 반등했다. 증가율도 11.6%에 달한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인스턴트 커피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커피믹스 매출은 2010년 1조177억원에서 2011년 1조121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1조1556억원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원두 커피믹스는 분말커피와 미분쇄 원두가루로만 구성된 크립과 설탕 등을 포함한 커피믹스가 아닌 인스턴트 커피에 포함된다.

음료업계 관계자는 "인스턴트



커피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원두 커피믹스 제품군이 포함돼 있다"며 "인스턴트 원두커피라는 신개념 커피가 등장하며 매년 4~5% 쇠락해 온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갑자기 11.6%나 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커피 시장에서 아메리카노를 필두로 크림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커피만을 즐기는 추세가 확산되며 분말 커피 시장에서도 사실상 죽어가던 인스턴트 커피가 되살아난 셈이다.

음료업계가 자체 추산한 인스턴트 원두커피 시장은 지난해 500억원 규모로, 올해는 800억원에 달하고 내년엔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자동차 보험료 24년만에 손질

가족 운전경력도 인정...25등급으로 할인·할증 재편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손질한다. 1989년 기준이 도입된 이후 24년 만이다.

김수봉 금융원 부원장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백지상태에서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며 "자동차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를 크게 2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사고 규모

와 종류별로 건당 0.5~4.0의 점수가 매겨져 등급 변동에 영향을 준다. 1등급이 오르내릴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5~7% 할인·할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6만대인 시절 만들어져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금융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87만대다.

가령 대인배상(다른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양측의 과실 비율이나 보험료 지급액과 무관하게 사고의 정도에 따라 점

수를 매기지만, 대물배상(다른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보험금 지급액만으로 점수를 매긴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20년 넘게 지속해 국민에게 익숙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의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단계별로 시행 시기를 나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이 인정되는 대상도 확대된다.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아 보험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인 최초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8%로 높지만 3년 이상이 되면 보험료율이 100%로 할인된다. /연합뉴스

올 수입 양과 5t 늘린다

올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양과 물량이 5만t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병해 피해와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양파의 올해 시장점진물량을 당초 2만645t

에서 7만645t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점진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시장 개방을 위해 합의한 최소한의 의무 수입 물량이다. 여

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수입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긴다. 4월에 국내산 양파가 출하될 때까지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3월 말까지 시장점진물량 2만t을 들여올 예정이다. 나머지 3만t은 수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14일부터 연말까지 수입 신고하는 물량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기름값 20% 싼 주유소 나온다

국민석유회사 21일 법인 설립

기름을 일반 주유소보다 20% 싸게 파는 주유소 설립을 목표로 하는 국민석유회사가 13일 창립발기인대회를 오는 21일 열고 법인 설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원회(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이날 "지난달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100주 이상 약정하고 창립 분담금을 낸 창립발기인 중심으로 법인 설립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증자를 통해

일반 약정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립발기인 대표로는 이태복 상임대표 외에 이윤구 전 적십자 총재, 이우재 전 마사회 회장, 이팔호 전 경찰청장, 이문원 전 독립기념관장, 소설가 조정래씨 등이 있다.

국민석유회사는 정유 4사 독점 구조인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공공성 역할을 지닌 석유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위는 국민석유 주유소가 기름을 20% 싸게 팔면 시장 원리에 따라 기존 정유사들도 기름값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중학생이상) 29,000원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80-29